



디지털 시대, 지식의 본성과 역할 -

디지털 시대 지식을 주도하는 자는
누구인가?

박 승 익 (숙명여대)

디지털 시대, 지식을 주도하는 자는 누구인가?



디지털 시대, 지식의 본성 문제

- 디지털 시대의 지식과 전통적인 지식의 차이
- 서사적 정당화 문제, 미디어의 특성과 지식 파편화, 하이브리드적 지식 etc.

디지털 시대, 지식 권력의 문제

- 지식 생산/소비(유통) 양상의 변화
- 전문가 시스템 문제, 지식 권력의 민주화 문제

디지털 시대, 지식이란 무엇인가?

허리케인이 예보되었을 때 가장 많이 팔릴 상품은?



2004년 월마트의 사례는 우리가 오늘날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데이터는 인간의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사고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준다! (가치에 대한 사실의 우선성)

“의사결정에 앞서 데이터만 보기 전에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올바른 맥락부터 구성해야 한다.”

_ 차시 코지르코프(Cassie Kozyrkov) in HBR (사실에 대한 가치의 우선성)

디지털 시대 지식의 특성_1

시대 \ 구분	대표 지식 형태	주요 media	내러티브 위상 특징	주요감각	정당화 서사 양식	권력관계 양상	지식 생산 및 유통
전근대	신화	구술/문자	비선형적	청각/시각	신성한 권위	권위적	독점적 전문가 시스템
	형이상학	문자	선형적	시각	논리적 정당화		
모던(근대)	과학	활자			실험적 정당화	민주적	민주적 전문가 시스템
포스트모던 (디지털)	공학	디지털	비선형적 (네트워크)	공감각			민주적 탈전문가 시스템 (시장주의적)

디지털 시대 지식의 특성_2_학문사적 고찰

정치적 지식(혜)와 과학적 지식의 분화와 통일

- 근대 이전의 지식은 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목적론적 문제 의식과 연관
- 이는 가치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가 뒤섞여 있는 상태.
- 근대 과학은 가치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를 구분하고 과학적 지식은 오직 사실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으로 한정. 이것이 근대 과학의 성공 비밀(객관성)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지식과 삶이 유리되는 결과를 낳음(‘학문의 위기와 삶의 위기’_ E. Husserl, A. MacIntyre)
- 만약 과학이 오직 사실에 관한 지식만을 탐구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천(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음.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
- 이 문제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식
 - 1) (사회)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좋은(혹은 올바른) 삶에 대한 합의(민주주의적 방식)
 - 2) 공동체적 삶을 이끌 가치의 문제를 민주주의적 합의에 의해 해결

디지털 시대 지식의 특성_3_모듈화된 지식의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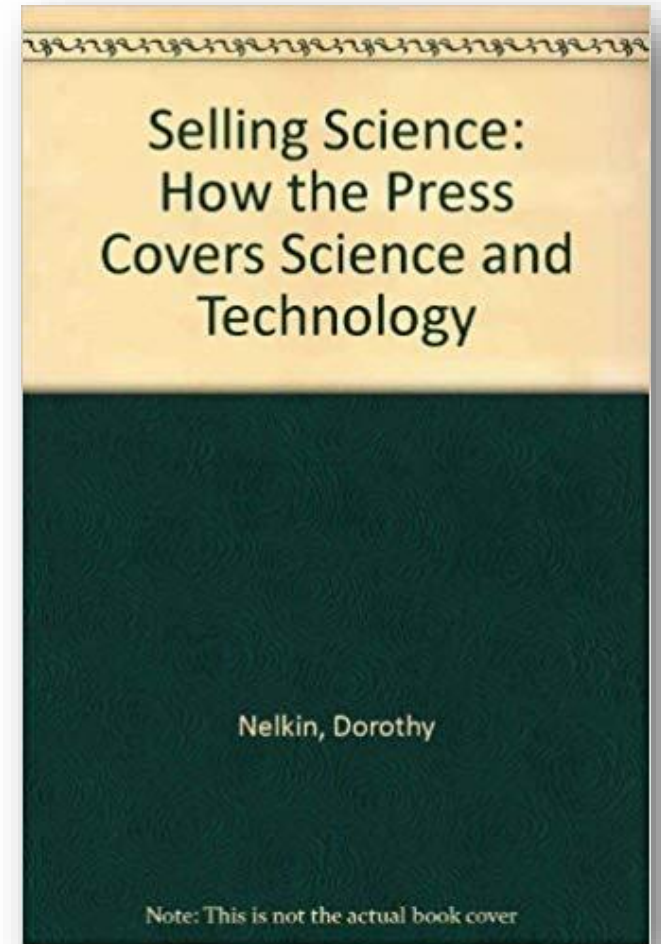
-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지식의 생산 시스템과 확산(유통)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한다.
- 그 결과 디지털 시대의 지식은 모듈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디지털 플랫폼 아래서 모듈화된 지식은 지식 생산 과정의 서사로부터 자유로워져 파편화한다. 디지털 시대의 지식 네트워크는 일종의 기계적 네트워크로서 높은 가소성을 갖는다.
- 이는 이종결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세계를 새로운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 해당 지식의 서사적 과정을 상실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식을 전체 지식 체계로부터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지식의 이러한 형태와 속성의 변화는 지식을 매개로 삶을 성찰하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로 변화시킨다. 이로써 파편화되었지만 유연한 지식 모형은 디지털 시대와 함께 정착한 포스트모던/다문화사회를 설명하는 구조적 원리로 작동한다.
- 따라서 삶의 문제에 관해서는 오직 민주주의적 합의라는 형식만 남는다.

지식 권력의 문제와 민주주의

- 고대 그리스에서 학문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토양이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_ A. Pichot in *La naissance de la science* (1991)
- 근대 과학 혁명과 활자문화의 확산은 과학적 지식 성장의 중요한 기폭제이자 동시에 전통적인 지식 권력을 해체시킴 -> 지식 생산과 확산에 있어 민주주의적 요소
- 디지털 시대(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더욱 확대시키고 심화되고 있음
- 디지털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지식 생산자가 될 수 있음. 지식 생산 시스템의 권위주의 해체
- 이러한 경향은 시장주의의 확산과 함께 가속화 -> 지식 (기반) 경제 패러다임

지식과 시장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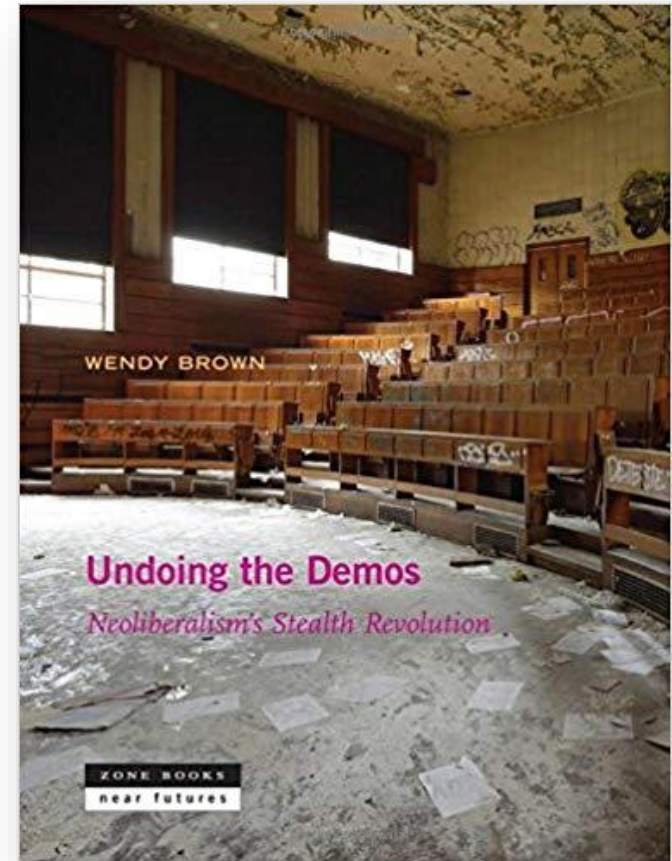
“지식 획득은 정신의 도야, 심지어 인격의 도야와 분리될 수 없다는 옛 원리는 더욱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지식의 공급자 및 사용자가 지식에 대하여 갖는 관계는 상품의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은 형태, 즉 가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지식은 팔리기 위해 생산되며, 또한 새로운 생산에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 소비된다. 이 두 경우에서 지식은 교환되기 위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다. 지식은 자기 고유의 목적을 포기하고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by _ J.-F. Lyotard, in <포스트모던적 조건> -> 지식의 상품화(merchandizing)



도로시 넬킨, <셀링 사이언스>

지식, 민주주의 & 시장주의

“단순히 시장과 돈이 민주주의를 부패 혹은 타락시키고 있다거나 정치 제도와 정치 결과가 금융 자본과 기업 자본에 의해 점점 잠식당하고 있다거나 민주주의가 부자들이 집권하는 금권주의로 대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오늘날 행정, 직장, 법정, 학교, 문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영역에 만연한 신자유주의 이성이 민주주의 구성요소의 명백하게 정치적인 특성, 의미, 실행을 경제적인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_ 웬디 브라운, <민주주의 살해하기>



W. Brown, *Undoing the Demos*

디지털 시대, 재현 기술의 발전과 전문가 시스템의 위기

디지털 재현 기술과 데이터 과학의 발전은 기계 지능(A.I.) 시스템을 발전시킴으로써 전문가(지식 생산자)를 재현해 냄.

Ex) MYCIN = Knowledge Base + Inference Engine
그 결과는 지식 생산 시스템에서 중간 계층의 소멸을 의미 = 지식 생산 시스템의 양극화: 극소수의 지식 생산자와 절대 다수의 소비자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에 유비)

Cf) 기초과학 분야 학문 후속 세대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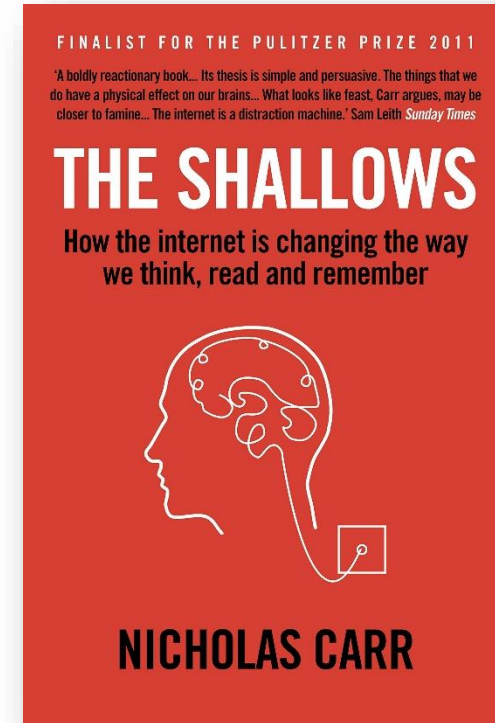


디지털 시대, 지식 권력 관계의 역설

- 근대 과학의 발전은 지식 생산/소비 시스템에서 민주주의적 체제를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시장주의 체제는 지식 생산 시스템마저도 시장화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 또한 증폭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양극화가 다시금 지식의 권위주의적 체계로 되돌리는 것은 아닐까?
- 대중적인 지식 소비자들은 오직 교환가치가 높은 지식들, 즉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지식들에만 열광한다. 이러한 지식들은 파편화되어 있고 높은 가소성을 갖기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하이브리드들을 낳지만 동시에 성찰적 사고에는 불리해 보인다. 이것이 도리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 오늘날의 지식이 지식탐구의 본래 동기였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답을 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삶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과학은 답을 줄 수 있을까? 이른바 사회적 딜레마들은 근대과학의 합리성만으로는 공동체적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 지식을 주도하는 자는 누구인가? – 열린 과제

지식 탐구의 본래 목적과 동기인 '더 좋은 삶 혹은 더 바람직한 삶'은 지식의 주인이 정치적 주체일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된다. 디지털 시대는 적어도 외견상(혹은 원리적)으로는 지식 권력의 다원화 및 분산화를 통해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도리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N. Carr)을 양산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지식 생산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체성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 지식의 본성과 역할 -

디지털 시대 지식을 주도하는 자는 누구인가?

? & Discussion